

Deloitte.



2024.12 | 제8호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카드뉴스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리더 메시지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8호는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제언',
'Big 4 회계법인은 글로벌 자본시장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명성을 얻었는가?' 등의 전문가 기고를 담았습니다.

또한, **'자금부정 통제 공시대응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점검포인트',**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 보수 동향' 과
주목할 최신 규제 동향을 수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딜로이트와 함께 하는 2024 결산 준비와 스마트한**
공시 대응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제언

현재 설계·운영되고 있는 통제가 기업의 실제 리스크 관리에 충분하고 실효적인지 반문하고, 실질적이고 정밀한 리스크 평가를 통하여 통제활동이 유효한지 점검해야

실효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

1) 통제가 중요하고 실질적인 리스크를 사전 예방할 수 있거나, 적시 적발이 가능한 유효한 통제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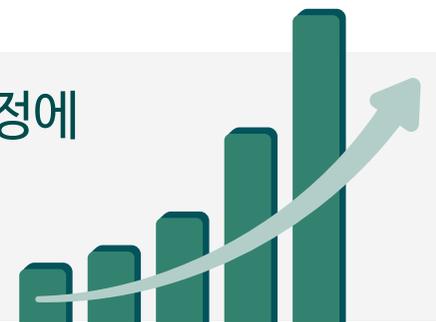
2) 통제가 업무매뉴얼과 연계되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행되어 별도의 업무부담 없이 Compliance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실질적인 리스크 평가를 통한 통제 활동의 선택과 집중',
'통제 활동의 정책과 절차와의 연계를 통한 내재화' 필요**

형식적인 위험평가는 형식적인 내부통제 운영을 초래하므로, 그룹 차원에서
본사 주도하에 통제활동이 유효한지 점검해야 함

→ 더불어, 정책과 업무매뉴얼과의 연계를 통해 통제 활동을 업무 과정에
내재화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임



Big 4 회계법인은 글로벌 자본시장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명성을 얻었는가?

Big 4 회계법인의 기원

- Big 4 는 영국에서 산업혁명 중 철도회사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얻으며 시작
- 칙허회계사(CA) 제도와 회계법인 조직화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얻음

미국에서의 발전 (Big 8 → Big 4)

- '80년대, Big 8에서 경쟁·합병 후 Big 6로, '90년대 Big 5 재편, '01년 엔론 사건 후 Big 4 체제 확립

독과점 우려

- Big 8 합병에 대한 독과점 우려로 의회가 제동을 걸었고, 감사품질 저하 및 가격 상승 우려 제기

자본시장 신뢰 유지

- Big 4는 합병·해산을 거쳐 자본시장 신뢰 유지, 매출액은 자본시장 신임도를 나타내는 척도
- Big 4와 그 외의 회계법인 간 매출액 차이가 크고, 경쟁업체들이 접근하기 어려움

Big 4 경쟁력 유지 전략

- 산업별 전문화, peer review, 전산감사프로그램 및 감사기법 개발, 지속적 교육

결론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Big 4에 대한 외부감사인 선정을 고려할 수 있음

자금부정 통제 공시대응을 위한 감사위원회 점검포인트

주요 내용

- 
최근 자금 관련 공시제도 강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점검할 사항을 살펴봄
*'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 의무 공시
- 
부정위험평가, 중요한 부정위험별 통제수립, 모니터링 및 공시자료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감사위원회의 자금부정 통제 공시 대응을 위한 점검 포인트

구분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시나리오에 비추어 자금 관련 부정위험평가의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속회사의 지역/업종별 상관행 등이 고려되었는가? - 공시 대상 종속회사가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부정위험별 통제수립의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표준자금통제, 종속회사의 유형별 통제활동이 그룹핑(Grouping) 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모니터링 통제가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가? - 종속회사 통제 모니터링 방법론이 수립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자료의 적정성이 검토되고 있는가?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금부정 통제 공시대응을 위한 감사위원회 점검포인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회사의 추가 고려사항

Phase 1

부정위험 평가

- 지배회사와 상이한 산업과 시장에서 운영되는 종속회사 고려
- 각 종속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상관행 특성 고려 (중국, 베트남, 인도 등)
- 지배회사와 상이한 ERP환경 고려
- 각 종속회사의 경영진의 통제무시 및 권한남용에 취약한 정도 고려

Phase 2

Scoping 재검토

- 연결그룹에서 차지하는 자금활동에 대한 각 종속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Zero base에서 Scoping 재검토 필요
- 질적 리스크를 신중히 판단

Phase 3

전사수준통제

- 종속회사 임직원의 내부고발/신고제도의 활성화
- 자금관련 업무분장에 대한 그룹의 규정 정립 (보완통제 포함)
- 종속회사 자금담당자의 순환근무제도 도입 고려
- 각 종속회사의 자금 관련 통제활동 운영 수준에 대한 보고수단 정립
- 각 종속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론 정립

Phase 4

자금통제

- 그룹의 자금표준통제 정립
- 표준통제로 적용이 어려운 종속회사의 유형별 표준통제 고려 (지역별, ERP시스템별 등)
- 그룹표준통제 중 종속회사가 적용해야만 하는 필수통제 지정 고려
- 각 종속회사가 선택한 통제의 수준을 계량화하여 종속회사별 통제의 수준을 모니터링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 보수 동향

국내 사외이사의 보수는 성과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수 수준을 주주 환원 수준과 맞추며, 이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임

FY2022~FY2024 사업연도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 평균보수 현황



FY'23 기준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평균보수는 4,867만원이며 FY'24(E) 는 5,078만원으로 예상

FY'23 기준

유가증권 상장법인 전체 사외이사 4,867만원 **vs.** KOSPI200 상장법인 사외이사 7,063만원

↳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 외형의 차이와 저명인사 대상 사외이사 영입에 대한 적극성의 차이도 한 요인

구분		FY2022	FY2023	FY2024 (E)
		평균보수	평균보수	평균보수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	4,799만원	4,867만원	5,078만원
	감사위원	5,278만원	5,382만원	5,494만원
KOSPI200 상장법인	사외이사	6,884만원	7,063만원	7,288만원
	감사위원	7,238만원	7,574만원	7,636만원

*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조사대상은 FY2022-FY2024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 정보 조사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회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주기적 지정 유예

-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개선 유도를 통해 근본적인 회계투명성 제고가 정책의 목표 
-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정 '면제'보다 '유예'(3년)로 검토 
-  밸류업 우수기업 중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 

IFRS 18

-  영업손익 분류방식 변경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통해 선제적으로 점검해왔고, 국내 현실에 맞게 수정 도입할 부분,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 
-  밀착지원을 위해 4대 회계법인도 T/F에 참여해 피감회사에 대한 영향점검과 교육·안내 강화 예정 
-  연내 공개초안 발표 후, 의견수렴 거쳐 '25년 중 기준 제정 계획 ('27년 시행 예정) 

감사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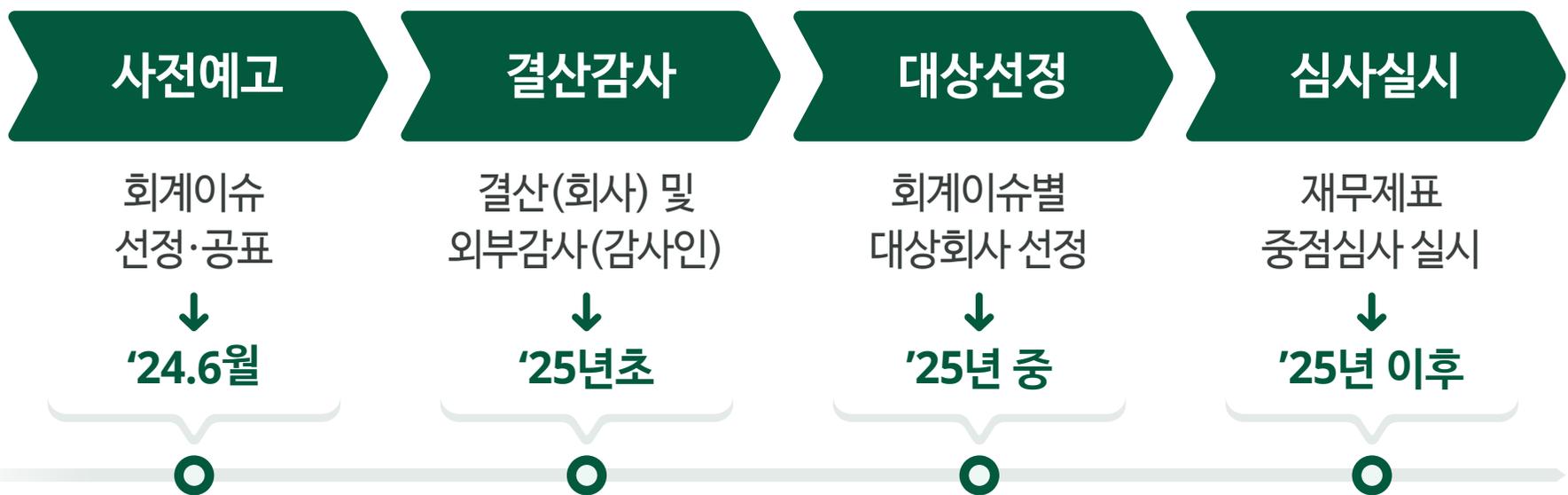
-  외부감사 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자체노력을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고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적용, 적용유예 연장 등 

2024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Q.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시, 주요 회계 이슈별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 및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중점심사 절차



'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25년 중 각 회계이슈별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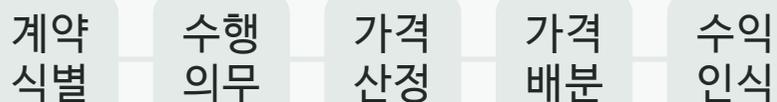
2024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는 ① 수익인식 회계처리, ② 비시장성 자산평가, ③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로,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 고객과의 계약조건, 관련 사실·상황 등 종합적 고려



관련 주식 공시

- 수익의 구분, 계약 잔액, 수행의무 등

※ 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 인식

- 취득시 분류 및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 평가

- 평가기법의 일관된 적용, 합리적 가정 및 투입변수 등

관련 주식 공시

-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 측정 관련 평가기법, 투입변수 등

※ 업종: 쏘 업종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5단계 수익인식

- 거래의 객관적 증빙 및 실질 유의

관련 주식 공시

- 해당 특수관계의 성격
- 거래금액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 채무 잔액
- 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당기 중 대손상각비 등

※ 업종: 쏘 업종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가상자산 발행기업

- 자의적으로 수익 및 자산 과대계상 금지, 유보토큰 주식공시

가상자산 보유기업

- 취득한 가상자산의 분류 및 최초(후속) 측정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여부 고려하여 자산(부채) 계상

※ 업종: 쏘 업종

딜로이트와 함께 하는 2024 결산 준비와 스마트한 공시 대응 세미나

개요

일 시 | 2024년 12월 19일(목) 14:00 ~ 16:35

장 소 |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The Forum (3F)

문 의 | deloitteAnjinAA@deloitte.com, 02-6138-6012

* KICPA CPD 등록 가능

** 교육확인서는 세미나 종료 이후 이메일 발급 예정



회사의 공시 및 결산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신뢰성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

※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참석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

딜로이트와 함께 하는 2024 결산 준비와 스마트한 공시 대응 세미나



프로그램

사회자: 강상욱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자문본부 본부장

13:30 ~ 14:00	참가자 등록	
14:00 ~ 14:05	Opening Remarks	장수재 회계감사부문 대표
14:05 ~ 14:35	I.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공시 체크포인트	장준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통합재무서비스 그룹 파트너
14:35 ~ 15:05	II. 더욱 정밀하게 - 자금부정통제 공시 체크포인트	정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CoE 센터장
15:05 ~ 15:20	Break Time	
15:20 ~ 15:50	III. 2024 회계연도 결산, 핵심준비사항은?	김태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품질관리실 파트너
15:50 ~ 16:30	IV. 디지털 공시 및 결산 환경의 스마트한 대응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 개발 및 데이터 분석 그룹 수석위원
16:30 ~ 16:35	Closing Remarks	강상욱 회계자문본부 본부장

※ Q&A는 각 세션에 포함됩니다.

※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웨비나 성료



웨비나 개요

대 상 |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C레벨·실무진
일 시 | 2024년 11월 5일 (화) 14:00 ~ 16:10
장 소 | 온라인 생중계 웨비나



다시보기



현장 스케치 영상

“ 효과적인 공시 감독 방향성을 정립하고 공시 감독과
거버넌스 선진화에 있어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Agenda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효과적인 국내외 공시 감독 및 현황

Session I. 경영지표와 ESG 공시: 자본시장과의 Communication

- 일부 기업의 내부자 거래 혹은 허위 공시 등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 된 사례 소개
- 충실한 경영지표·ESG 공시가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 강조
-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경영지표와 ESG 공시에 대한 시사점 제시





Session II. 회사의 부정과 이사회 역할

- 감사위원회가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감리 사례 제시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회사와 협력하여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역할의 중요성 강조



Session III.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선방안 및 글로벌 이사회 공시 감독 현황

- 글로벌 ESG 공시 규제 동향에 따른 지배기구 공시 감독의 인식 변화와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공시 감독 역할의 차이를 설명하며 실효성 있는 공시 감독 포인트 소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개선방안 제시하며 거버넌스 개선은 필수임을 강조



Session IV.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시와 이사회 역할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 이행점검 및 소통의 전 과정을 이끄는 지배기구의 역할 수행 강조
-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사례 소개,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방향 및 지배기구 역할 논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krccg@deloitte.com

김한석 Partner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hansukim@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